대중가요 리메이크에 관한 연구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을 중심으로-

신민경,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뮤직트레이너과 e-mail:hialiceshin@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Remake of Popular Songs
-Focusing on the song 'In the Shade of the Street Tree'-

Min-Kyung Shin,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현대 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대 간 문화적 간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세대 간의 차이는 주로 가치관, 의사소통 방식, 음악을 비롯한 문화적 경험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융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리메이크 음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적인 요소로 파편화되고 분극화된 미디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세대 간의 문화적 간극이 좁혀지며,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젊은 세대는 리메이크를 통해 과거의 명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버전을 접하면서 과거 세대의 문화적 유산을 이해하게 되고, 기성세대는 자신이 익숙한 곡이 새롭게 변화된 형태로 다시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는 리메이크 음악의 가치를 재조명,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세대 간의 융합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서 론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과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대 간 문화적, 사회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음악은 세대 간의 차이를 체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다. 하루에도 수십 곡의 신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친숙한 제목을 가진 곡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리메이크곡이다. 리메이크(Remake)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 리메이크 음악은 향수에 대한거부감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세대 간장벽을 허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화성과 수용성을 통하여 분극화·화편화된 미디어 이용 현상으로 인한 세대 갈등을 해결할 사회적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데사회적 의의가 있으며 문화 산업적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선순환의 사례를 만들기 때문에 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의의가 인지된다.[1].

본 논문은 리메이크 음악이 신·구 세대 간의 융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과거의 음악적 유산을 보존 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로운 음악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음악적 융합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통합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문화적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2.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곡 해설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은 1988년 9월 15일 발매된 가수 이문 세 5집 음반 타이틀곡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리움에 관한 아름다운 시적인 가사,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창법으로 대중들의 정서와 공감을 얻어냈다. 그리움의 사전적 의미는 보고싶어 애타는 마음으로 이를 통해 그리움의 대상이 현실속에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나간 사랑이 마음이 아프고 그립지만, 아름답게 기억하려는 화자의 감정이 느껴진다. 과거를 지나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이며 사랑과 이별을 경험했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다. 특유의 고전적인 아름다운 반주로 인해 이문세의 많은 명곡들 중에서

도 인기가 많으며, 음악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

2.1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 이문세

이문세는 대한민국의 MC겸 가수이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위해서 음악을 시작한 것이 생업이 되었다고 한다. 말솜씨도 좋고 유머 감각과 예능감도 상당히 좋아 전성기 때엔 토크쇼 진행이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많았다. MBC 표준FM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별밤지기)로 1985년 4월 8일부터 1996년 12월 2일까지 1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의 DI로 있었고.

"밤의 문교부장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당시에는 문화와 교육을 함께 묶어문교부였다. 실제로 1995년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데뷔이래현재까지도 꾸준히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가수 중한 명으로 평가되며, 이영훈과함께협업하며이전까지 대한민국의 가요에 존재했던 뽕끼를 최대한배제하며수많은명곡을 만들어낸, 한국식 발라드를 대중에게널리알린최초의가수중한명으로 평가받는다. 자신의 강점인중·처음역대를강조해서음색이쉽게틀어지는 단점을잘 커버하면서 김광석과 같이 표현력의 교과서라는평가까지받고 있다. 세련된발라드창법을 내세우며당시 10대들에게큰 인기를구사했으며,히트곡이많은가수이다.대표곡으로는광화문연가,옛사랑, 깊은밤을날아서, 붉은 노을, 가로수그늘아래서면,소년등인기가많고 그의위상만큼이나리메이크도많이되었다.[2]

2.1.1 곡 분석

E Key이며 Tempo는 98로 Intro를 단조롭게 밝은 느낌으로 시작하여 Ritrdando와 Permata를 사용하여 곡의 분위기와 템 포가 바뀌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Intro 끝맺음 역할을 한다. 첫 소절'라일락 꽃'에서 '락'부분에서 Tempo가 65로 바뀌어진다. Verse파트에서 9-12마디의 코드진행이 I-V-VIm-V 7sus4-I-V-VIm으로 17-20마디의 똑같은 코드로 Melodic Manipulation으로 진행되어 진다.



[그림1] 이문세,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Verse 1

42마디에서는 V-VIdim-VIIm의 반음 상행 진행의 Line Cliche로 디미니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행으로 단조로움 속에 아름다운 색채를 넣어 곡의 특징을 살려주었다.



[그림2] 이문세,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Outro

47마디에서 IV-V-Ⅱm에서 5도에서 2도 마이너로 넘어가는 사이에 어프로치 노트를 패싱노트로 한음을 16분음표, 2개의음은 32분음표로 하행 진행 되어진다. 잔잔한 여운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 시적인 가사 표현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2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 임재범

임재범은 대한민국 록 가수, 보컬리스트로서 완벽한 보컬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3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 서 록 음악 가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그는 이후 1986년 시 나위에 앨범 제의가 들어오면서 1집 녹음에 참여'크게 라이도 를 켜고'가 라디오에 나오면서 공식 데뷔했다. 시나위 1집은 한국 최초의 헤비메탈 음반으로 평가받고 10만장 이상을 판 매했고 후에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으로 꼽히기도 했다. 1990년 발표된 아시아나 1집은 해외를 겨냥하여 거의 전곡을 영어로 만들고 영국에서 녹음을 하는 등 상당히 공을 들였지 만 당시 국내의 반응과 여건이 좋지 못했다. 1991년 솔로로 전향하여 1집 타이틀곡'이 밤이 지나면'으로 큰 인기를 얻었 으나 표절 판정을 받고 방송출연 정지를 당했다. 이후 2004년 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대표곡으로는 2집 사랑보 다 깊은 상처, 3집 고해, 4집 너를 위해 등이 있다. 2010년 KBS드라마《추노》의 메인 타이틀 곡인'낙인'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2011년 5월 MBC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 제 2의 전성기를 맞았다.[3]

2.2.1 곡 분석

록 발라드 버전의 4/4박자, Tempo는 67이며, E b Key로 리메이크를 하였다. Intro의 5마디 페르마타(Permata)로 원래박자보다 2~3박 느리게 연주하여 인트로의 끝맺음에서 곡의

여운을 표현을 하여 보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어 주었다.



[그림3] 임재범,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Intro

8-9마디의 IV-Ⅱ의 진행을 아름다운 요소로 Ⅲ도를 16분음 표로 4개의 음으로 분할하여 텐션음도 하나의 지나가는 음으로 포함하여 상행 진행으로 넣어주어 아름다운 선율로 원곡의 특징을 잘 살려 진행되었고 연주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보이스톤으로 첫 소절과 함께 곡의 아름다움을 풍성함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톡톡히 하였다.



[그림4] 임재범,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Outro 1

34마디'밑'가사에서 보컬플레이를 할 때, 애드리브를 넣어 가사와 리듬에 강조를 주었고, IV-Vsus4-VIm7 순차적 상행 진행이 되어진다. 44마디에서 Ⅱ-Ⅲm-IV-Vsus4 상행진행과 Vsus4-V-VIm의 단3도 이내의 반음 순차진행으로 Line Cliche로 Intro부터 Outro까지 예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냈다.



[그림5] 임재범,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Outro 2

마지막 끝맺음은 Rit.(리타르단도)와 Permata(페르마타)를 사용하여 곡의 여운을 주며 끝맺음을 진행하였다. 호소력 짙은 감성으로 대중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다. 원곡의 의도를 살려서 진행한 연주, 보컬 플레이였지만 같은 곡이면서 다른 표

현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리메이크 음악은 세대 간의 소통과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문화적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음악은 언제나 특정 시대를 반 영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정적, 정서적 연결 고리로 작용해 왔다. 과거의 명곡을 새로운 세대의 취향과 감 각에 맞게 재해석하여, 음악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다 른 세대 간의 감정적, 문화적 간극을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즐겼던 음악을 새로운 세대가 다시 즐기는 모습을 통해 문화적 연속성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젊은 세대는 그들이 접하지 못했던 과거의 명곡을 새 로운 해석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음악적 다리를 건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리메이크 음악은 세대 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감정적 공감대 형성을 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감정의 표현 수단이며, 한 시대의 정서를 담아내는 예술이다.

리메이크 음악의 또 다른 긍정적인 매개체 역할은 창조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단순히 과거의 음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며 창조적 가치를 더해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창출하는 중요한 문화적 도구로 기능한다. 리메이크 음악이 세대 간의 융합에 미치는 긍정적인 매개체 역할은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을 통한 세대 간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예술적으로 더 좋은 곡으로 신·구세대가 융합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온 리메이크 대중음악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서, 추가적인 특징 및 경향을 발견하고 또 다른 하위 장르를 구분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자들이 기존의 분류 방식보다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보다 더 넓은 범주에서 리메이크를 분석함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다.

참고문헌

- [1] 박선민, 「대중가요 리메이크와 복고」, 커뮤니케이션북 스, 2015, <리메이크 · 표절 · 번안 · 샘플링>
- [2] 나무위키, 이문세 검색일자, 24.8.22

https://namu.wiki/w/%EC%9D%B4%EB%AC%B8%EC%84 %B8

[3] 나무위키, 임재범 검색일자, 24.8.22

https://ko.wikipedia.org/wiki/%EC%9E%84%EC%9E%AC %EB%B2%94